

장 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<Black Lotus>

February, 2016

page 1 of 2

이달의 NEW

EXHIBITION

유리구슬로 내면의 세계를 엮다

장 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<Black Lotus>

기간 : 2016년 2월 2일~3월 27일
(일요일과 공휴일은 5시까지)

장소 : 국제갤러리 3관(K3)



지난 2013년 파리의 한 지하철역 입구를 장식하고 있던 그의 작품

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장 미셸 오토니엘 (Jean-Michel Othoniel)의 전시가 열린다.

1964년 태생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장 미셸 오토니엘. 그를 예술가의 길로 이끈 것은 비극적이게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였다. 사제를 꿈꾸던 신학생을 사랑했으나 그의 연인은 종교적 신념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 이후 그는 예술가의 길을 택했으나, 그의 작품 곳곳에는 그 슬픔이 묻어나는 듯하다.

그에게 유리는 좋은 소재였다. 단단하지만 깨지기 쉽고, 색이 있으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의 양면성을 통해 화려함 뒤 개인이 은밀하게 지니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었다. 성소수자였던 그는 이 유리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다.

이번 개인전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유리 조각작품은 물론이고 최근에 작업한 석판화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. 특히 갤러리가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하니, 자연 속 그의 작품이 어떻게 다가올지 더욱 궁금해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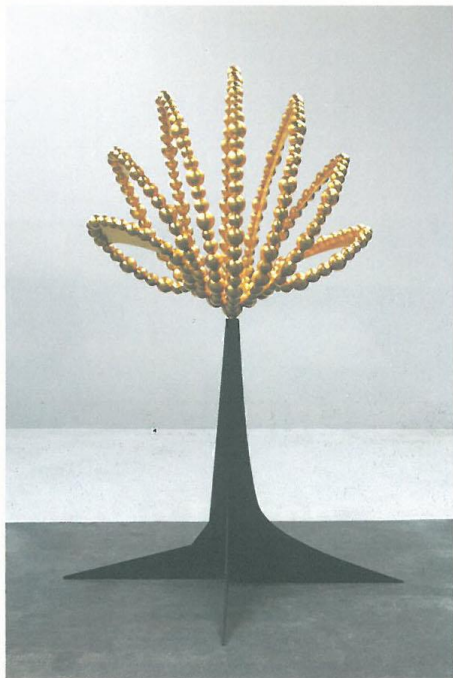
Black Lotus

2015
Black anodised aluminium cast, steel
150 x 150 x 150 cm
Courtesy of Jean-Michel Othoniel Studio
이미지제공: 국제갤러리



Purple Lotus

2015
Mirrored glass, stainless steel
130 x 120 x 120 cm
Courtesy of Jean-Michel Othoniel Studio
이미지제공: 국제갤러리



Gold Lotus

2015
Aluminium cast, gold leaves, painted steel
360 x 230 x 180 cm
Courtesy of Jean-Michel Othoniel Studio
이미지제공: 국제갤러리